

일본의 배상과 보상은 국가 배상과 보상, 개인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93.11.9
로동신문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폐막

평양 11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8일 폐막되었다.

폐막에 앞서 토론들이 계속되었다.

토론자들은 일본이 과거죄행을 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며 그 사회의 물질적표시로서 피해보상 문제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인류의 도덕문명과 판명되는 국제적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하에서 입은 인적, 물질 및 문화적 재부들에 대한 피해정형조사자료들을 제기하고 그 보상의 법적근거들을 밝히었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연구사 교수, 박사 리종현은 600여만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을 강제연행하여 노예와 같이 학대하고 혹사하였으며 100여만명을 학살하고 20여만명의 여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 일제의 만행은 조선인민을 민족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밑에 감행된 전대미문의 만행이며 인도에 대한 범죄, 집단살해 및 방지에 관한 조약, 세계인권선언을 짓밟는 중대한 인권범죄라고 확언하였다.

그는 보상문제는 일본이 인권범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물질담보에 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인적, 물질 피해문제를 재산청구권법위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의 부당성을 밝히었다.

메이지대학 교수 윤노 후꾸주는 일본정부의 조선사람들에 대

한 《로무동원》은 1938년에 공포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 국가적규모에서 이루어지고 기지건설, 군수공장 등에 조선청장년들중 4명당 1명이 로무자나 병사로 징발되었다고 증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실은 1940년 당시 조선인구중 16살부터 40살사이의 남자는 조선내에서의 동원까지 합하면 《마을에는 젊은 남자가 없어졌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닐만큼 모두 강제징집당했음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구일본의 조선사람들에 대한 《동원》은 일본의 침략전쟁을 위한 피지배민족으로서의 동원이며 가족재산, 생사불명 등 인권이 무시된 공공연한 강제동원으로서 그 강제성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하면서 그것은 국가책임하에 이루어진 강제로 규정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본정부의 립장과 태도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박하였다.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 중앙본부 사무국장 홍상진은 조선사람들에 대한 강제연행이란 여성에 대한 성적노예제, 《로무동원》에 의한 강제노동, 징병 등에 의한 군무동원을 의미하며 그 방법에 있어서 탐치, 판권력에 의한 강요와 사기 등에 의해 감행된 편행형태의 총칭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노예잡이식으로 진행된 편행방법과 강제노동실태, 일본로동성 창고에 보관되었던 명부

와 자기 단체가 조사한 자료에 근거한 수자들을 열거하고 사실이 이러함에도 일본정부는 《적법》과 《합법》을 운운하면서 범죄사실 그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릿교대학 강사 이코 도시야는 1940년과 1941년을 중심으로 일본군이 준비하고 실행했던 세군전에 대한 자료들을 밝히면서 일본은 1925년 6월의 제네바협정에 조인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조약정신을 짓밟고 1932년부터 벌써 세군무기를 연구해왔다고 폭로하였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실장 박사 원종규는 일제가 조선의 왕통을 비롯한 옛 무덤들과 성과 비석, 옛 건물과 석조물 등 역사유적들을 파괴하고 수십만점에 달하는 값진 물건들을 약탈해다가 그것을 일본의 《국보》, 《중요문화재》, 《중요미술품》들로 지정한 사실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일제가 1904년에 벌써 조선문화재약탈을 명명하고 그 파괴행위를 《참으로 나라를 빛내이는 행동》이라고 찬양하면서 1910년부터 1918년 사이에만도 단군관계의 책들을 20여만권이나 불태웠으며 가정의 그릇, 절간의 동종, 동불상까지 약탈해간 사실들을 열거하였다.

이러한 야만적인 문화재파괴약탈은 인류도덕성에 대한 범죄이며 헤그와 워싱턴에서 채택된 조약 그리고 유네스코 제16차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 등 국제법들을 관묵하게 위반한 국제범죄라

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약탈했던 문화재를 반환하는 국제판례가 수립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웅당한 사회와 보상은 물론 반환조차 하지 않고있다고 하면서 국제법과 도의에 맞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학박사전종합출판사 박사 최윤규는 1932년에 《강제로 동급지조약》에 가입한 일제가 조선사람들에 대한 노예적인 착취와 약탈을 계속 감행하여온데 대한 상세한 자료들을 제기하고 그들에 대한 강제저금, 미지불임금은 현재의 일본돈으로 6조엔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이바라기대학 강사 가스야 마사카즈는 일본의 조선사연구회가 일본학교 교과서들에 올바른 역사관을 넣을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일본은 그 어떤 슬책이나 꾀변으로써도 침략과 약탈에 대한 국제적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고 하면서 철저히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제가 패망하면서 저지른 조선의 경제대상물과 시설들에 대한 계획적인 파괴와 의도적인 《조선은행권》 랍탈, 조선전쟁 공모와 참가, 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일본의 배상과 보상은 조선침략에 대한 국제법적책임으로부터의 국가 배상과 보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법

적책임으로부터 피해자 자신들에 대한 개인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론증하였다.

이어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오문환위원장이 폐막사를 하였다.

그는 이번 토론회에서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죄행의 강도성과 비법성이 론증되고 그에 대한 보상의 법적근거들이 광범위하게 론의되었다고 하면서 토론회는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한 측면들을 국제법적으로 논의한 의의깊은 회합이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전후처리문제를 진상규명이 없는 《사죄》의 빈말과 인적 피해를 몇푼의 돈으로 처리해보려는 일본정부의 불성실한 립장과 태도는 국제적도의와 양심은 물론 아시아와 세계 평화위협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지난날을 되살리려는 일본정부의 위험한 기도가 숨겨져있다고 말하였다.

끝으로 그는 일본의 전후처리문제를 아세아인민들의 리익과 세계평화위협에 맞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이 지역의 여러 단체들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축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강제징집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폐막사에 앞서 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 정부, 국회, 정당, 단체와 국제기구들에 보내지게 된다.

침략자, 매국노들은 무사치 못할것이다

아래의 사진들은 서울의 일본대사관앞 도로를 점거하고 힘찬 반일시위를 벌리고있는 남조선 여성들과 인민들의 투쟁 모습이다. 그들의 요구는 일본당국이 우리 조선여성들에게 감행한 과거 일제의 치명적인 만행에 대해 사죄하고 마땅한 보상을 하라는것이다.

《일본은 사과하라》, 《정신대만행의 전모를 밝히라》, 《내놈들을 잊지 않을것이다》 등의 구호판과 프랑카드를 들고 투쟁에 나선 사람들의 얼굴마다엔 일제에 대한 피의 복수심이 그대로 어려있다. 너무도 웅당한 투쟁이다.

우리 민족은 지난날 조선을 강점하고 근 20만의 조선여성들을 강제연행하여 침략군의 성노예로 짓밟았던 일제야만들의 죄악을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절대로 잊을수 없다.

그런데도 일본정부는 아직까지 《종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조차 똑바로 까밝히지 않고있으며 그 책임을 회피해나서고 있다.

더욱더 용납할수 없는것은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남조선 현 집권자들의 열빠진 태도이다. 그

들은 민족의 명예와 존엄은 안중에도 없이 《과거에 구애되지 않는》 남조선일본관계발전에 대해 떠들면서 과거 일제의 죄행을 그대로 덮어두고 일본과의 범죄적결탁만을 추구하고있다. 자기 민족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이보다 더 큰 사대매국행위가 어디에 있겠는가.

일본정부와 남조선당국자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조선민족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모든 최악의 대가를 기어코 받아낼것이다. 민족을 배신한 사대매국노들은 역사와 인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호영길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7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되었다.

토론회에는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대표들과 우리 나라 법제, 학제, 언론계 일꾼들, 조선인강제면행진상조사단 조선인측 중앙본부 대표들과 총련일꾼들, 조선인강제면행진상조사단 일본인측 전국연락협의회와 일본의 전쟁책임자료센터 대표들, 유엔비정부기구 일꾼들과 일본변호사연합회 변호사들, 일본에 의한 필리핀의 군사적성노에피해자특별조사단, 남조선《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대사관 출판관계일꾼들이 방청으로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 오문환위원장의 개막연설이 있었다.

그는 일본의 전후처리문제는 가해국과 피해국사이의 물론 국제적인 정의와 양심, 세계평화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세계적인 관심사로 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정부가 과거에 저지른 죄행의 범죄적성격을 약화시

아세아 나라들에 대한 일제의 침략과 강점, 학살, 강제 련행은 불법무도한 강도적행위이며 반인륜적인 대범죄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개막 93.11.7 조선신보

키고 어물쩍해넘기려고 하는 조건에서 그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 도의적 책임을 따지는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는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이어 일본에서 온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일본 소카대학 교수 스즈키 지로가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최근 《중군위안부》문제에 이어 일본의 강제면행문제에 대한 세계적관심이 높아지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는 부정의와 인권침해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에서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식민지 지배 및 전후처리와 전쟁책임 문제에 관한 일본국가와 일본인들의 양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일본이 아세아와 세계인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일조관계를 개선하는 길은 반세기동안이나 해결되지 않고있는 전후처

리문제들을 솔직히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10여명의 대표들이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측면들을 역사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국제법적으로 고찰론의하였다.

토론자들은 《울사5조약》의 비법성과 무효성에 대하여 논쟁하고 그에 대한 책임과 배상의 법적근거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강과장 김길진은 《울사5조약》은 일제가 이미 1904년 원로회의와 내각회의들에서 장차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대조선방침을 수립한 기초우에서 《제결》된 《조약》이며 그 《교섭》과 《조인》에 이르는 전과정이 무력적 강제와 협박으로 일관되어있다고 지적하고 그 사실적자료들을 열거하였다.

그는 당시 최고주권자의 인가도 없고 형식도 갖추지 못한 이 《조

약》은 철저히 무효라고 주장하고 려강의 국가수반들에게 보낸 고종의 비밀 전보와 친서가 최근에 밝혀짐으로써 그 무효성은 더욱더 증명되었다고 말하였다.

메이지대학 교수 윤노 후꾸주는 토론회에서 당시 일본은 1904년에 체결한 《일한정서》에서 조선의 독립과 영토완정을 보증하고 3국과의 조약체결시 사전상호승인을 규정하고도 영토권을 소유한 국가주권자의 립장을 위시라는데 대하여 토론했었다.

또한 그들은 이 범죄가 조선민족살상책동의 일환으로 감행된 반인륜적대죄라고 확언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제가 1921년 《여성아동매매의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명할 때 21살미만의 일본인여성들에 대한 매매금지 조항은 넣으면서도 조선에서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사실을 밝히고 20여만의 《위안부》중 대부분이 10대의 조선소녀들이었다는것을 고쳐말 때 《위안부》정책은 철저히 조선민족살상을 위한 은폐된 목적을 추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에 의한 필리핀의 군사적성노에피해자특별조사단 공동조정자 로데스 인다이 사호르는 일본군의 위안소 또는 유곽설치가 1932년에 제도화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 목적은 점령지에서의 반항, 성병, 정탐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안부》제도화는 여성들에게 감행된 성적폭행과 차별의 가장 극심한 형태들중의 하나이라고 규탄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성노리개로 취급한 일제의 죄행을 사실적인 자료들을 들어 폭로하였다.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리본정부는 배상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공권력에 의한 《중군위안부》의 강제면행과 제도화, 그 실태, 그에 대한 국제법적책임과 일제의 학살만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강제, 랍치, 박해, 감시, 참살 등으로 특징지어진 《중군위안부》범죄는 국제법상 여성들을 노예화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이라는데 대하여 토론했었다.

토론자들은 일제가 1921년 《여성아동매매의 금지에 관한 국제조약》에 서명할 때 21살미만의 일본인여성들에 대한 매매금지 조항은 넣으면서도 조선에서는 이 조약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사실을 밝히고 20여만의 《위안부》중 대부분이 10대의 조선소녀들이었다는것을 고쳐말 때 《위안부》정책은 철저히 조선민족살상을 위한 은폐된 목적을 추구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에 의한 필리핀의 군사적성노에피해자특별조사단 공동조정자 로데스 인다이 사호르는 일본군의 위안소 또는 유곽설치가 1932년에 제도화된데 대하여 언급하고 그 목적은 점령지에서의 반항, 성병, 정탐행위를 방지하는데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위안부》제도화는 여성들에게 감행된 성적폭행과 차별의 가장 극심한 형태들중의 하나이라고 규탄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고 그들을 성노리개로 취급한 일제의 죄행을 사실적인 자료들을 들어 폭로하였다.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리본정부는 배상의 책임에서 결코

의 본질은 일본 정부와 군대가 정책적으로 조선여성들을 강제로 면행하여 성노예로 삼은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법적으로 실시된 개인적 및 집단적 강간행위일뿐 아니라 민족살상을 기도한 범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회피하고있는 일본정부의 태도와 남조선당국의 립장을 밝히면서 일본의 전쟁범죄와 비인간적범죄가 사실로 립증되는데 대하여 그 배상과 보상책임을 묻지 않을수 있겠는가고 반문하고 《한일협정》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정대협》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범죄자처벌, 사죄 및 배상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이 단체의 활동정형은 소개하였다.

간도 가꾸임대학 조교수 하야시 히로후미와 작가 니시노 루미코는 일본의 《중군위안부》정책의 지휘명령체계를 조사한 기초우에서 특군과 해군, 내무성, 외무성 그리고 조선, 대만 두 총독부가 이에 관여한 사실과 1932년과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개시 이후시기의 위안소정책에 대한 연구자료, 군, 헌병의 협력관계, 《위안부》들에 대한 관리실태 조사자료들을 제기하였다.

일본사회당소속 참의원의원 사미즈 스미코는 《위안부》문제를 놓고 국회에서 활동한 정형을 통보하였다.

또한 남조선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윤정옥은 위안소설치의 경위로부터 시기, 수송, 지역, 경영 및 판리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적인 강간과 집단행위를 합법적으로 보장한 구일본의 반인륜적범죄행위를 어물쩍해넘기려고 책동하는 일본정부의 태도는 세계 양심과 정의에 대한 우롱이며 희생자들과 피해생존자들을 또다시 모독하는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일본정부가 애당초 이러한 범죄를 인정하지도 않으려 했으며 죄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나오면 인정하고 안 나오면 부정하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지어는 국가적인 책임마저 부정하려고 하고있는데 대하여 분격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일본정부가 국제법적책임과 용병의 보상에 대해서는 일인반구도 없이 《다무적 및 쌍무적 협정》을 통하여 해결되었다는 립장을 취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일본은 전후처리를 너무나도 불성실하게 하고있다고 비난

하였다.

이날 토론자들은 또한 일제의 학살만행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들은 가장 야만적이고 모악한 방법으로 조선인들을 학살한 만행은 역사상 류례가 없는 가장 극악한 반인륜적이며 비인간적인 특대형범죄로서 국제법상 인권, 인도에 대한 죄의 전형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보상의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고 강조하고 그들은 그 사죄와 보상에 대한 문제는 일본인들의 양심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중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날저녁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을 위한 연회가 있었다.

리인모동지와 총련의 방문단 성원들이 상봉

선명과 의지의 화신 리인모동지와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제202차 제일동포단기조국방문단 성원들이 5일 평양에서 상봉하였다.

리인모동지는 조국의 품에 안겨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받아안은데 대하여 지적하고 자신의 실지 체험을 통하여 사회주의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것을 실감으로 느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해외에서 사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팔없는 궁지와 굳은 신념을 안

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억세게 살며 투쟁해나아가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방문단 성원들은 상봉을 통하여 깊은 감명과 커다란 고무를 받았다고 하면서 리인모동지의 강의한 혁명적의지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워 사회주의 내 조국의 통일전쟁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쳐나갈 굳은 결의를 표명하였다.

참가자들은 노래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를 힘차게 불렀다. 방문단 성원들은 리인모동지에게 기념품을 남기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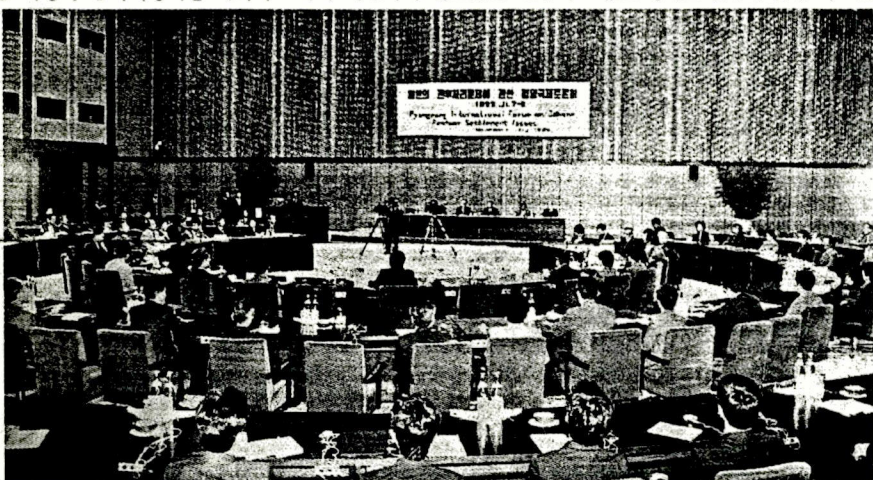
【조선중앙통신】

여러 나라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 진행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 탄자니아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문화회관, 잠비아 이블린대학, 예금의 문화회관과 민중영화관에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의 사이에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었다.

영화감상회들에는 정제, 사회제, 학제, 출판보도제 인사들과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폐허에 솟아난 조선》, 《꽃피는 재능》, 《통일의 꽃》 등 영화들이 상영되었다.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평양국제토론회가 개막되었다.